



# 2008 하반기 주요국 경제동향 및 경제전망

세계지역연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미국</li> <li>II. EU</li> <li>III. 일본</li> <li>IV. 중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 이슈</li> <li>2. 최근 경제 동향</li> <li>3. 전망</li> </ul>
--	--

## 주요내용

### I. 미국

- ▶ 2008년 하반기 미국경제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 시장 및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주택시장 악화, 고용 둔화, 소비 지출 약화 등 실물부문의 저성장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2008년 미국의 GDP는 지난해에 비해 1.2%p 하락한 1%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저성장세는 200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II. EU

- ▶ 2008년 하반기에는 가계 및 정부 부문의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양호했던 기업투자와 수출 부문의 성장세도 상반기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08년 EU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 (2.8%)보다 낮은 1.7~2.0%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EU 국가들 가운데 특히 신용경색 및 주택경기 침체 현상이 뚜렷한 영국 및 스페인의 경기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III. 일본

- ▶ 2%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던 일본경제는 2007년 이후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2008년의 경제성장률이 1.4%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 세계경제의 부진이 일본의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일본 국내에서 투자 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최근 일본정부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경기위축을 감안하여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됨.

### IV. 중국

- ▶ 2008년 상반기에 10.4%의 경제성장을 기록,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중국경제는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임금인상, 수출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임.
- 투자와 소비의 견조한 성장세, 외국인직접투자의 꾸준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기급락의 가능성은 낮음.
- 수출 증가세 둔화와 시중 유동성 증가의 안정세를 고려, 중국정부의 긴축기조는 다소 완화될 것이며, 위안화 절상 속도 역시 상반기에 비해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됨.

# I. 미국

## 1. 주요 이슈

### ■ 미국 경제성장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증대

- 지난 7월 15일, 벤 버냉키(Ben Bernanke) 연준의장은 미 상원에서 2008년 미국경제는 경제성장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동시에 증가한 상황이라고 증언하면서, 연준의 최우선과제는 금융시장이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언급함.

### ■ 2008년 하반기 각종 위험요인 지속 존재

- 한편 2008년 2/4분기 미국경제는 1/4분기(연율 0.9% 성장) 보다 높은 1.9%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하반기 미국 경제는 주택시장 위축, 고용부진, 신용경색, 고유가 등의 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 2. 최근 경제 동향

### 가. 금융시장 동향

- 2008년 현재 미국 금융시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심화를 막기 위한 미국 금융당국·의회·행정부의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및 금융불안의 일시적 진정·확산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7월 들어 미국 주택모기지 대출시장의 약 42%(2008년 1/4분기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의 부실우려 확산이 미국 금융시장 및 국제금융시장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부각됨.

- 금융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7월 13일, 버냉키 연준의장과 폴슨 재무부 장관은 미국 주택금융시장의 근간인 패니메이 및 프레디맥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여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대책의 주요내용은 뉴욕 연준을 통한 재할인대출 허용, 재무부의 신용공여한도 확대, 필요시 미재무부의 주식 매입, 동 기관에 대한 연준의 감독역할 부여 등임.

### 나. 물가 동향

- 2008년 상반기 물가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었고, 근원 소비자물가는 2.3~2.4%로 연준(FRB)의 적절한 수준을 다소 상회함.

- 2008년 2분기 중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4.4%, 7.6% 상승하여 전 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함.

표 2. 미국 물가지수 추이

(단위: 전년동기,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소비자물가	3.2	2.4	2.7	2.4	4.0	2.9	4.1	4.4
근원소비자물가	2.5	2.6	2.3	2.2	2.3	2.3	2.4	2.3
생산자물가	3.0	1.9	3.5	4.1	6.5	3.9	6.9	7.6
근원생산자물가	2.4	1.7	1.6	2.2	2.2	1.9	2.5	3.0

자료: 노동부(2008.7)

표 1.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

	2006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실질GDP	2.8	0.1	4.8	4.8	-0.2	2.0	0.9	1.9
개인소비지출	3.0	3.9	2.0	2.0	1.0	2.8	0.9	1.5
민간투자	2.1	-9.6	6.2	3.5	-11.9	-5.4	-5.8	-14.8
비주거용 설비투자 <sup>3)</sup>	7.2	0.0	6.9	3.6	1.0	1.7	-0.6	-3.4
주택건설	-7.1	-16.2	-11.5	-20.6	-27.0	-17.9	-25.1	-15.6
정부지출	1.7	0.9	3.9	3.8	0.8	1.9	1.9	3.4
경상수지	-788.1	-196.3	-194.1	-173.0	-167.2	-732.1	-17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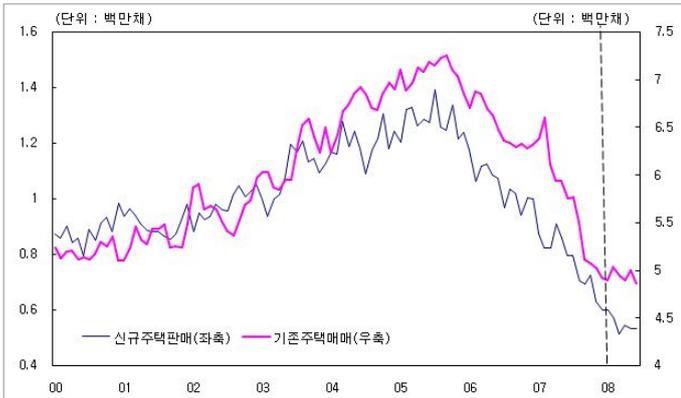
주: 1) 잠정치 2) 소프트웨어 포함 3) 연간 환산치  
 자료: 미 상무부(2008.7.31)

**다. 주택시장 동향**

■ 2008 상반기 주택시장은 신용경색과 모기지금리 상승, 주택 차입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 침체 지속. 2008년 6월 현재 기존주택판매와 신규주택판매는 각각 연 486만 채(전년동월대비 16% 감소), 연 53만 채(전년동월대비 33%감소)를 기록함.

※ 전미주택건축업체협회(NAHB)에서 발표하는 7월 주택시장 지수도 전월(18)보다 하락한 16을 기록하여 주택경기침체 지속을 시사함.

그림 1. 신규 및 기존 주택판매 추이



자료: 전미부동산협회(2008.8)

■ 상반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심화, 연체 급증, (경매를 위한) 주택압류(foreclosure) 증가, 매물압박 및 주택가격 급락, 다시 모기지 연체를 확대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됨.

※ 2008년 1/4분기 전체 주택압류 처분 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2.47%를 기록함.

표 3. 주택압류(Foreclosure) 비율 추이

	2004	2005	2006	2007년				2008
				1/4	2/4	3/4	4/4	
전체 주택	1.15	0.99	1.19	1.28	1.40	1.69	2.04	2.47
프라임	0.49	0.42	0.50	0.54	0.59	0.79	0.96	1.22
서브프라임	3.82	3.33	4.53	5.10	5.52	6.89	8.65	10.74

주: 각년도 기말 기준.  
자료: Bloomberg;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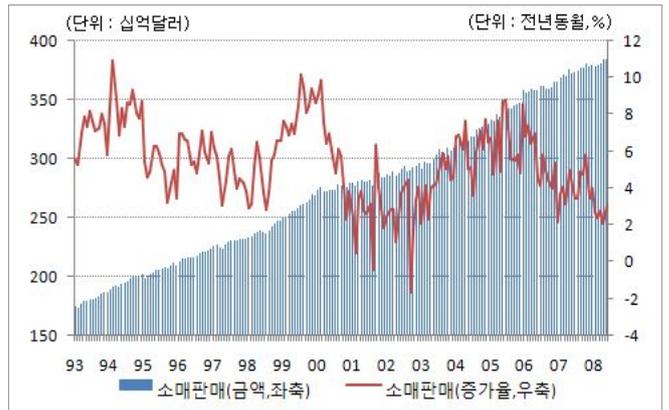
**라. 소비지출 동향**

■ 소매판매(Retail Sales)는 5월과 6월에 각각 전월대비 0.8%, 0.1% 증가. 특히 6월 소비지출은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하여 4월 말부터 시작된 소득세 환급의 영향이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고유가·고용위축에 따른 가계의 소비여력 감소로 인해, 소비심리지표는 하락세를 지속

※ 6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992년 2월 이래 최저치인 50.4,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는 1980년 5월 이래 최저치인 56.4를 기록함.

그림 2. 소매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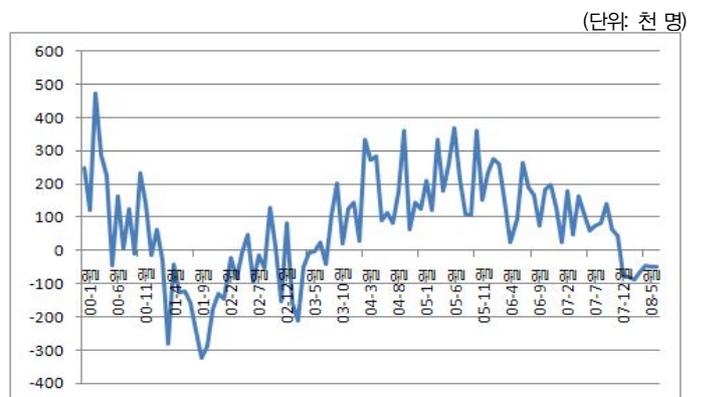
자료: 미 상무부(2008. 7)

**마. 고용 동향**

■ 2008년 7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가 5.1만 명 감소(7개월 연속 감소)하였고, 1~7월 총 463,000명의 고용이 사라짐. 실업률은 5.7%로 2004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7월 고용 동향은 제조업(-35,000명), 건설업(-22,000명), 서비스업(전문가 및 사업 서비스: -24,000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용감소 발생

그림 3. 미국 비농업부문 월별 고용 증감 추이



자료: 미 노동부(200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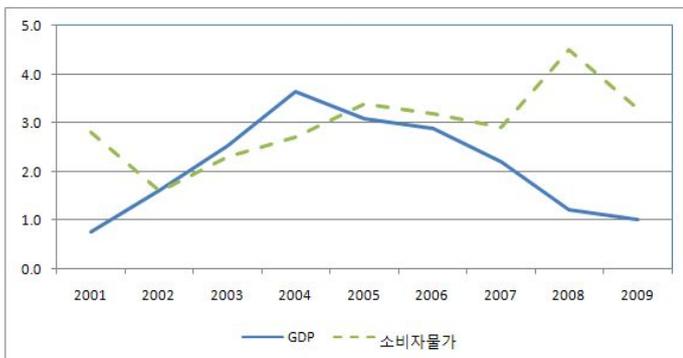
- 또한 7월 26일 기준 신규실업수당 주간청구자수는 44.8만 명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7월 19일 기준에

비해 4만 4천 명이 증가하여, 고용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

### 3. 전망

- 2008년 상반기 미국경제는 금융위기 심화·주택 경기 침체 지속·고용 및 소비 악화·고유가·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완만한 경기침체 또는 저성장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었음.
  - 2008년 1/4분기 미국경제는 시장의 기대보다 높은 0.9%의 실질성장을 달성하였으며, 미 정책당국과 의회의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2/4 분기에도 1.9% 성장을 달성하였음.
- 2008년 하반기 미국경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지속·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주택시장 악화 및 고용둔화 등 실물부문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 미국경제의 저성장은 200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2008년 GDP는 2007년에 비해 1.2%p 하락한 1%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sup>1)</sup>

그림 4. GDP와 소비자 물가 전망



- 고유가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선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개선될 것임.
  - 한편 FRB의 정책금리 판단기준이 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 (core PCE)은 연준의 안심권인 1~2% 수준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sup>2)</sup>

1) FRB는 2008년 미국의 GDP 성장률을 1.0~1.6%, IMF는 1.3%로 전망하고 있음.

2) FRB는 7월 15일 의회에 제출한 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근원 개인소비지출 전망치를 4월과 같은 2.2%~2.4%로 제시하고 있음.

- 소비지출은 2008년 3/4분기 보다는 미정부의 소득세 환급 등의 효과가 급격히 소진될 것으로 추정되는 2008년 4/4분기 및 2009년 1/4분기에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주택시장 부진 및 고유가가 하반기에도 지속되는 한 신속한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지표의 부진 추세도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주택부문의 가격조정은 200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소비의 자산효과 감소, 대출기준 강화에 따른 신용위축 지속, 소비심리 악화 등의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주택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주택압류를 막기 위한 노력이 주 및 연방 정부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11월 선거 및 세수 감소를 의식해 주 차원의 노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코네티컷, 메릴랜드 주 등 총 9개 주 정부가 약 4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긴급자금을 서브프라임 모기지 소유자에게 지원하였고 20여개 주가 유사한 정책안을 추진 및 실시 중임.
  - 연방 정부는 7월 31일 주택구제법(Housing-rescue bill)을 법안화하였음. 주택압류 처분을 단기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되나, Fannie Mae와 Freddie Mac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는 향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달러 약세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추세, 유로화의 영향력 확대, 위안화 절상 등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sup>3)</sup>

- 미국의 실질실효환율(2000년 100 기준)은 2002년 2월 108.04 이후 6년간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6월에는 82.58을 기록하고 있음.<sup>4)</sup>

-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러 강세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

3) 최근 부시 대통령, 미 재무장관, FRB 의장 등의 달러 강세 지지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실제로 달러 강세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대다수임.

4)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생활 수도 있으나, 달러약세 추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연구진:**

이준규 미주팀 부연구위원

(junkyul@kiep.go.kr, Tel: 3460-1128)

김종혁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Tel: 3460-1193)

고희채 미주팀 연구원

(hcko@kiep.go.kr, Tel: 3460-1086)

## II. EU

### 1. 주요 이슈

■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유로화 강세

- 7월 3일,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4.0%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함.

- ECB의 금리인상 결정은, 경기둔화가 완만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인 4.0%를 기록하여 지난해 9월 이후 ECB의 목표치(2.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등 물가상승 조짐이 나타난 데 따른 것임.

- ECB의 금리인상으로 EU와 미국의 금리차이가 확대되면서 유로화 강세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및 주택시장 침체

-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회원국들의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였으나 ECB의 금리인상과 신용경색 등의 여파로 2007년 하반기 이후 가계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경기가 둔화됨.

- 그러나 ECB의 금리인상 및 서브프라임 여파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대출기준이 강화되면서 2007년 하반기 이후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있음.

## 2. 최근 경제 동향

### 가. 완만한 경기둔화 지속

■ 2007년 상반기까지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EU경제는 2007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

-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실질GDP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 2.9%(2007.3/4) → 2.5%(2007.4/4) → 2.3%(2008.1/4)

- 또한 2008년 5월 EU의 산업생산지수 증가율도 전년동월 대비 -0.3%로 2005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각종 경제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음.

■ 주요 회원국별로 보면 독일의 성장세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그동안 경기호조를 보였던 스페인과 영국의 경기둔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2008년 1/4분기 독일의 실질 GDP 증가율은 전기대비 0.7%를 기록한 반면, 주택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스페인과 영국은 각각 0.3%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됨.

표 1. EU 및 주요회원국의 실질 GDP 증가율 추이

	2006	2007	2007			2008
			2/4	3/4	4/4	1/4
EU27	3.1	2.8	0.5 (2.9)	0.7 (2.9)	0.5 (2.5)	0.7 (2.3)
독 일	2.9	2.5	0.2 (2.6)	0.7 (2.5)	0.3 (1.8)	1.5 (2.6)
프랑스	2.0	1.9	0.5 (1.7)	0.7 (2.4)	0.4 (2.2)	0.5 (2.0)
스페인	3.9	3.8	0.9 (4.0)	0.7 (3.8)	0.8 (3.5)	0.3 (2.7)
영 국	2.9	3.0	0.9 (3.3)	0.6 (3.1)	0.6 (2.8)	0.3 (2.3)

주: 분기별 증가율은 전기대비 기준이며, ( )는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자료: EU 통계청(Eurostat)

### 나. 투자와 수출은 활발하나 소비는 부진

■ 기업투자와 수출부문이 EU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반면, 가계소비 및 정부소비 지출은 부진함.

- 2008년 1/4분기 총투자 증가율은 전기대비 1.0%로 양호한 성적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보다는 낮은 수준임.

- 독일기업을 중심으로 그동안 임금인상 억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 수출호조 등으로 기업의 재무여건이 개선되면서 투자여력이 확대되었고,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국 정부의 친기업적 개혁정책 추진으로 기업투자가 꾸준히 증가함.

■ 또한 2007년 4/4분기에 전기대비 0.7%로 주춤했던 수출증가율이 2008년 1/4분기에 2.0%로 회복됨.

- 2006~2007년 동안 EU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출부문이 세계경기 둔화와 유로화 강세로 인하여 다소 영향을 받고 있지만,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구매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 및 중동 산유국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반면, 2008년 1/4분기 가계소비 지출 증가율은 전기대비 0.3%에 그쳤음.

- 기업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증가\*가 가계소비지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높은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과 주택경기침체, 그리고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복지축소의 개혁정책 등이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음.

\* 2008년 5월 유로지역 실업률은 7.2%로 유로지역 출범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2004년 한때 9.0%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이 최근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표 2. EU27의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전기대비 기준			전년동기대비 기준		
	2007.3/4	2007.4/4	2008.1/4	2007.3/4	2007.4/4	2008.1/4
가계소비	0.6	0.1	0.3	2.5	1.8	1.7
정부소비	0.5	0.3	0.4	2.2	2.0	1.4
총 투자	1.2	1.4	1.0	4.7	4.1	3.4
수 출	2.0	0.7	2.0	6.8	4.5	5.6
수 입	2.9	-0.1	1.7	6.7	4.7	4.6
GDP	0.7	0.5	0.7	2.9	2.5	2.3

주: 분기 자료는 전기대비 증가율 기준임.  
자료: EU 통계청(Eurostat)

- 정부소비 지출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재정적자가 2003년 이래 GDP의 3%를 초과하여 EU의 안정·성장협약(SGP)<sup>5)</sup>

5)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은 회원국들의 건전한 재정균형과 낮은 공공부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준칙(fiscal rule)으로, 경제통화동맹(EMU) 참가국으로 하여금 매년 재정수립조건(재정적자를 경상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고, 정부부채 잔액이 경상 GDP의 60% 이하가 되어야 함)을 충족시키도록 강

의 재정준칙을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주요국들은 긴축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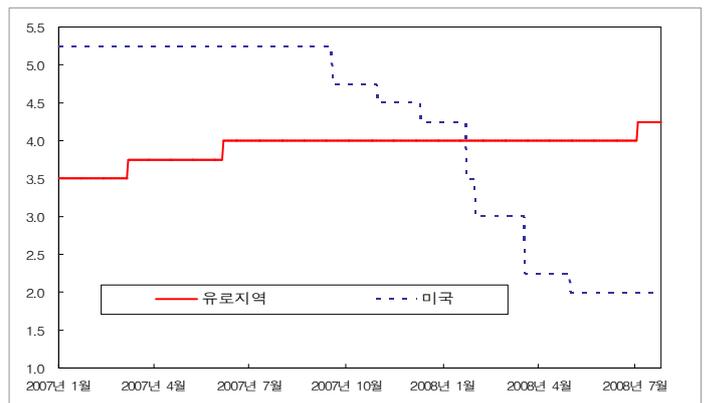
다. 금리인상 지속과 유로화 강세

■ ECB는 2.0%로 유지했던 기준금리를 2005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4.25%까지 인상하였음.

- 반면 5.25%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 9월 이후 2008년 4월까지 모두 일곱 번 인하되어 7월 현재 2.0%를 유지하고 있음.

- 7월 중 유로화는 한때 1유로당 1.604달러를 기록하여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강세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1. 유로지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 ECB의 금리인상 조치에 따른 유로화 강세 현상은 유로지역의 물가상승 압력을 다소 완화시켜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수출에는 부담이 되고 있음.

-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급등이 유로지역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이므로 유로화 강세는 수입물가 상승을 완화시켜 줌.

라. 주택시장 침체

■ 2007년 하반기 이후 각국에서 주택경기의 침체가 나타나 2008년까지 지속되고 있음.

- 영국의 주택가격은 2007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고 2008년 4월 이후에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남.

제하고 있음.

표 3. 주요 EU 회원국들의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

(단위: 전년대비 %)

	81~90	91~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스페인	6.6	1.3	6.5	12.8	16.3	14.9	10.9	6.3	3.8
프랑스	0.7	0.1	6.0	6.2	9.3	12.5	13.2	10.1	6.8
영국	6.8	1.1	6.9	14.6	14.5	10.3	3.5	3.8	8.3
덴마크	-0.3	3.1	3.5	1.3	1.1	7.9	15.6	19.2	3.4
독일	-1.6	0.1	-1.9	-3.3	-2.0	-3.8	-2.0	-1.1	-0.6

주: \* 2007년은 상반기만 해당됨.  
 자료: EU 통계청(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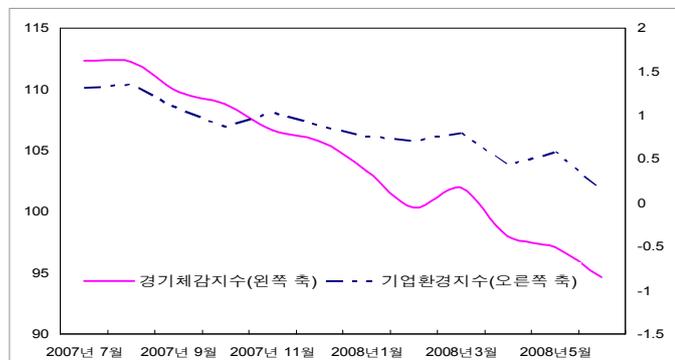
■ 2008년 중 주택경기 하락은 가계소비 둔화, 건설투자 위축, 금융기관의 부실 등으로 이어져 해당 국가들의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됨.

- 그동안 주택가격의 급등은 부(wealth)의 효과를 일으켜 가계소비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2008년 중 주택가격 하락은 모기지 대출에 의존하여 주택을 구매한 가계들의 채무 부담을 높여 가계소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그동안 건설경기 호황을 누리왔던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의 회원국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경기둔화가 가중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금융산업을 보유한 영국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음.

### 3.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

■ 최근 각종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EU 경제는 상반기에 비하여 경기하락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그림 2. EU의 ESI 및 BCI 지수 추이



자료: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그림 2]에서와 같이 경기체감지수(Economic Sentiment Indicator: ESI) 및 사업환경지수(Business Climate Indicator: BCI)<sup>6)</sup> 등 EU 경기전망에 관한 각종 서베이 지

표들이 2008년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어 2008년 하반기의 경기하락세가 예상됨.

■ 특히 그동안 양호한 성적을 보였던 기업투자와 수출부문의 성장이 상반기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가계소비와 정부소비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들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주요국들의 친기업적 개혁정책의 결과 기업투자가 하반기에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독일 및 스페인 등 주요국에서의 임금인상 압력과 신용경색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부진 등으로 상반기보다는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고유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산유국들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겠지만 미국, 중국 등 전세계적인 경기둔화와 유로화 강세의 압력이 EU 기업들의 수출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복지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혁정책 및 고물가, 고금리,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소비 위축, 그리고 긴축재정정책 기조 유지에 따른 정부소비 지출 위축 현상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임.

■ 따라서 2008년 EU 경제성장률은 2007년(2.8%)보다 낮은 1.7~2.0%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동안 고성장을 누리왔던 영국과 스페인의 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 금융시장 불안과 주택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영국과 스페인<sup>7)</sup>의 경기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기업투자와 수출에서 양호한 성적을 보였던 독일도 악화된 대외여건 영향을 받아 경기둔화폭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됨.
- 반면, 2007년 저성장 기조를 보였던 프랑스 경제는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 및 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성장률 하락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6) ESI 및 BCI는 EU 집행위가 EU 회원국 기업체, 소비자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재 및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 등을 조사한 것으로 각각 100과 0보다 클 경우 경기호조를 의미함.

7) 스페인의 200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약 0.6~2.2%로 예측기관별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실제 약 1.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표 4. 예측기관별 2008년 EU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EU 집행위	EIU	Global Insight
EU27	2.0	1.8	1.7
독 일	1.8	1.9	2.0
프 랑 스	1.6	1.6	1.5
스 페 인	2.2	0.6	1.4
영 국	1.7	1.3	1.4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08, Spring), *Economic Forecasts*; EIU (2008, 6), *Country Report*; Global Insight (2008, 7)

**연구진:**

김군태 유럽팀 전문연구원

(ktkim@kiep.go.kr, Tel: 3460-1064)

### III.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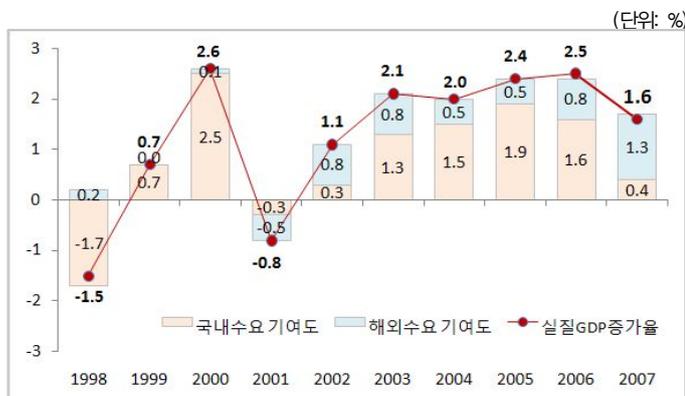
#### 1. 주요 이슈

■ 한물 꺾인 성장세

- 2002년 이후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되어온 일본경제는 2007년도에 1.6%의 성장을 기록한 이후 2008년도와 2009년도에도 각각 1.4% 및 1.7%라는 낮은 수준에서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08년도에는 유가급등 및 미국경기 둔화 등에 따른 경기부진이 예상되면서, 일본 내 다수의 경제연구소에서는 경기후퇴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음.

그림 1. 일본경제의 실질GDP성장률 및 내외수 기여도 추이



주: 각 년은 회계연도(당해 4월 ~ 이듬해 3월) 기준임.  
 자료: 일본 내각부(2008.6.11)

■ 유가상승 등 가격급등에 대한 긴급대책 추진

- 최근 일본정부는 내각부 7월 월례경제보고나 일본은행 7월 금융경제월보 등에서 경기둔화 우려를 표명하였음. 이와 더불어 금년 6월 26일에는 최근의 원유, 식료품, 원자재 등의 가격급등에 대응해 「원유 등 가격급등 대책」을 발표 하였음.

글상자 1. 「원유 등 가격급등 대책」의 주요 내용

- 국제석유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조에 적극 노력
  - 원유의 상류(탐광, 개발 등) · 하류(정제 등)에 투자확대
  - 에너지 절약 · 재생가능에너지 추진
  - 투기자금을 포함한 석유시장의 가격요인 분석 등
- 중소기업 대책
  - 사회안전망 보증 대상의 확대(159 → 170개 업종)
  -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한 원활한 자금 공급
  - 중소기업의 금융실태 감시 강화 등
- 지방대책, 국민생활 지원
  - 원거리의 고도(孤島)에 대한 보조 추진
  - 경영이 어려운 지방 버스노선에 대한 비용 보조
  - 생활 빈곤자에 대한 유류 구입비 지원 등
  - 석유제품 가격 감시 등
- 기타 각 업종별 대책

자료: <http://www.kantei.go.jp/jp/singi/koutou/dai1/tsiryou1.pdf>

■ 환경·에너지를 중시하는 저탄소사회 지향

- 일본정부의 경제·재정개혁 지침서인 『경제재정개혁 기본방침 2008 - 열린 나라, 전원참가의 성장, 환경과의 공생』(6월 27일 발표)에서는 특히 에너지환경을 중시한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함.

- 일본이 보유한 탄소배출 절감기술을 국제적으로 보급하여 일본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도 내포하고 있음.

■ 금리수준 동결

- 한편 최근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소비자물

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향후 일본은행의 금리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일본은행은 7월 15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일본의 경기상황을 “더욱 둔화되고 있다”고 하향 수정했으며, 정책금리(무담보 콜금리)는 현상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일본은행은 2007년 2월 이후 정책금리수준을 0.5%로 유지해오고 있음.
- 한편 일본은행은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8%로 상향 조정하였음.

표 1.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

기간	2006년	2007년	2008년					
			1	2	3	4	5	6
CPI	0.1	0.3	0.8	1.0	1.2	0.9	1.5	1.9

주: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임.  
자료: 총무성 통계국

## 2. 최근 경제동향

- 일본 내각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성장률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4분기(2007 회계연도에 포함)는 전기대비 1.0%(연율환산 4.0%)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6월 11일 제2차 속보 기준).
- 특히 민간주택투자의 회복(+4.6%), 수출호조(+4.0%) 및 민간소비의 확대(+0.8%)가 경기호조세를 견인하였음.
- 한편, 기업수익 악화에 따라 설비투자는 부진(+0.2%)했음.

그림 2. 일본경제의 분기별 실질GDP증가율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2008.6.11)

표 2. 일본경제의 항목별 실질GDP증가율 실적

(단위: 전기 대비 %)

	2007년도		2008년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차 속보	(1차)
실질GDP 증가율	0.2	0.7	1.0	(0.8)
민간최종소비지출	0.0	0.4	0.8	(0.8)
민간주택투자	-8.0	-9.2	4.6	(4.6)
민간설비투자	0.8	1.2	0.2	(-0.9)
공적고정자본형성	-1.4	0.6	1.3	(1.5)
재화서비스 수출	2.8	2.6	4.0	(4.5)
재화서비스 수입	-0.1	0.9	1.4	(2.0)
내수기여도	-0.3	0.4	0.5	(0.3)
외수기여도	0.5	0.3	0.5	(0.5)

자료: 일본 내각부(2008.6.11)

- 그러나 200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08년 2/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37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식료품 가격상승에 따른 개인소비의 악화, 해외경제의 급속한 감속에 따른 수출 둔화 등을 배경으로 2/4분기에 -0.7%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음(경제기획협회 7/10).
- 이에 따라 2008년도 성장률은 2007년도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글상자 2. GDP 속보와 주요 경제지표간 괴리

#### ■ GDP 속보, 여타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역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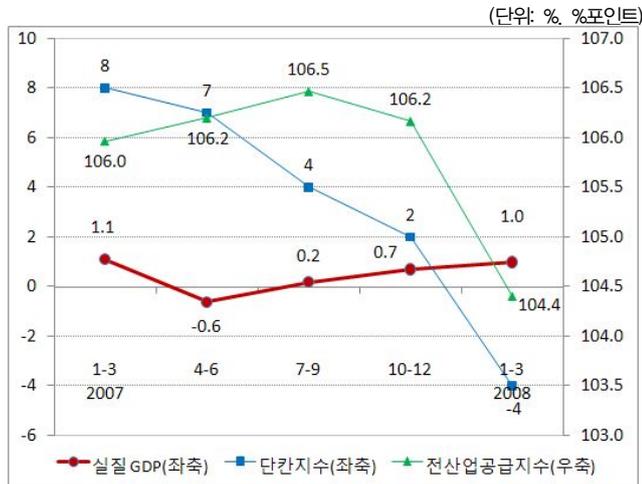
- 2007년 3/4분기 이후 GDP 속보치와 일본은행 단칸지수 및 전산업공급지수가 반대로 움직임.

#### ■ 이러한 GDP 속보와 여타 경제지표간 괴리는 기초통계와 계절조정의 불안정 등 GDP 통계 특유의 요인에 기인

- 기초통계의 불안정: GDP 속보는 수요 측면의 통계인 가계조사과 법인기업통계를 이용해 추계하는데, 이때 조사대상 가계와 기업의 잦은 교체와 조사범위의 협소 등의 요인에 따라 표준편차가 커지면서 통계의 정밀도에 문제 발생.

- 계절조정의 불안정: 예년에 비해 하루가 더 많은 윤년의 문제가 GDP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윤년 조정을 하지 않음.

〈주요 경제지표 추이〉



주: 전산업공급지수는 월별 데이터를 분기로 환산(평균)한 것임.  
 자료: 내각부, 일본은행, 경제산업성

- 이러한 GDP통계 추계상의 문제 외에도 가격·품질 조정상의 문제 및 추계 지체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기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따라서 최근에는 경기판단 시 수요측의 GDP 통계뿐 아니라 단칸지수나 광공업생산과 같은 주요 지표도 함께 참고해야 하며, GDP 통계 또한 공급측에서의 추계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주장이 제기됨.

자료: 일본 제일생명경제연구소(2008.6.25), 『경기와 거꾸로 가는 GDP 속보』

### 3. 전망

#### ■ 2008년에는 저성장 예상

- 일본의 28개 민간연구소는 2008년도 일본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해 저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함.
- 원재료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개인소비 또한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임. 이와 더불어 미국 등 해외시장의 경기둔화가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최근 내각부와 일본은행은 2008년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을 연초 대비 각각 0.7 및 0.3포인트씩 감소한 1.3%와 1.2%로 하향 조정하였음(일본경제신문 7/15).

#### ■ 항목별 전망

- 개인소비는 가솔린·식료품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심리의 악화, 고용정세의 개선 템포 둔화 등을 배경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주택투자는 건축기준법 개정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2007년에 비해 증가할 전망이나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어 증가폭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공공투자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재정상황 악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신흥국·자원부국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둔화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되어 전체적으로는 2007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 ■ 2009년에는 성장세가 약간 회복

- 일본의 28개 민간연구소는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비해 성장률이 높아져 1.7%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미국경제가 회복기조로 돌아서고, 유가급등도 일단락되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 자율 경기회복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으로 보는 기관이 많았음.
- 구체적으로는 대미 수출의 개선을 계기로 기업부문에서의 생산 회복, 수익 개선, 설비투자 증가 등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고용·임금 상황의 개선, 소비자심리의 진정 등을 통해 가계부문의 상황도 호전되면서 국내수요 주도의 점진적인 경기회복이 시현될 것으로 전망됨.

표 3. 2008~09년도 일본경제 전망(민간연구소 전망치 평균)

(단위: 전년 대비 %)

	2007년도 (잠정)	2008년도 (전망)	2009년도 (전망)
실질GDP	1.5	1.4	1.7
증가율			
민간최종소비지출	1.4	1.2	1.4
민간주택투자	-13.3	4.0	1.7
민간설비투자	-0.5	0.3	2.3
공적고정자본형성	-1.7	-2.5	-2.8
재화서비스 수출	9.7	6.5	5.4
재화서비스 수입	2.3	3.0	3.5
내수기여도	0.3	0.7	1.2
외수기여도	1.2	0.7	0.5

주: 각 수치는 2008년 5월 말 시점에 28개 민간연구소가 전망한 수치와 평균임.  
 자료: 중소기업금융공고 종합연구소(2008.5.28)

■ 금리인상은 2009년 하반기 이후

- 향후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 일본 이코노미스트들의 60% 이상은 2009년 6월 이후로 응답하고 있음(경제기획협회 7/10).
- 일본은행은 물가상승과 경기감속이라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고려하면서 2009년 중반까지는 금리수준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됨.

표 4. 일본 금리인상 시기 전망

	2008년		2009년			금리 인하	계
	7~12월	1월	2~3월	4~5월	6월 이후		
응답자수	1	0	4	7	22	1	35

주: 일본 내 37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응답자 기준임).  
 자료: 経企企画協会(2008.7.10), 「ESPフォーキャスト調査」

연구진:

정성춘 일본팀 연구위원

(jung@kiep.go.kr, Tel: 3460-1202)

이형근 일본팀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Tel: 3460-1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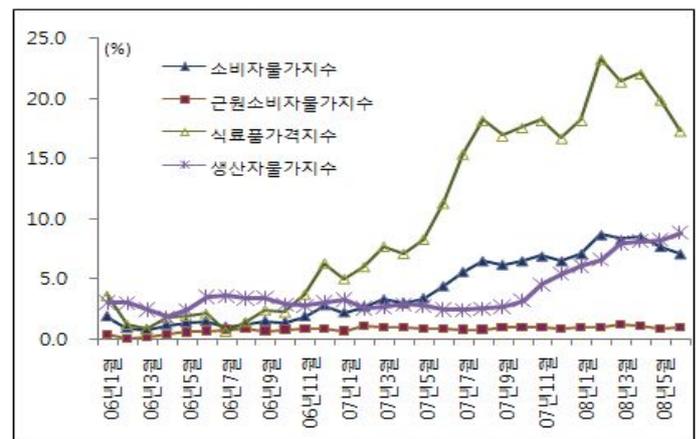
## IV. 중국

### 1. 주요 이슈

■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

- 2008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7.1%로 5월의 7.7%보다 둔화되어 다소 안정되었으나 2007년 하반기 이래 5% 이상의 높은 수준이며, 특히 생산자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하반기 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음.
- 임금 및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2007년 하반기부터 생산자물가의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2008년 6월에는 8.8%를 기록하였음.

그림 1.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지수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수출증가세 둔화 및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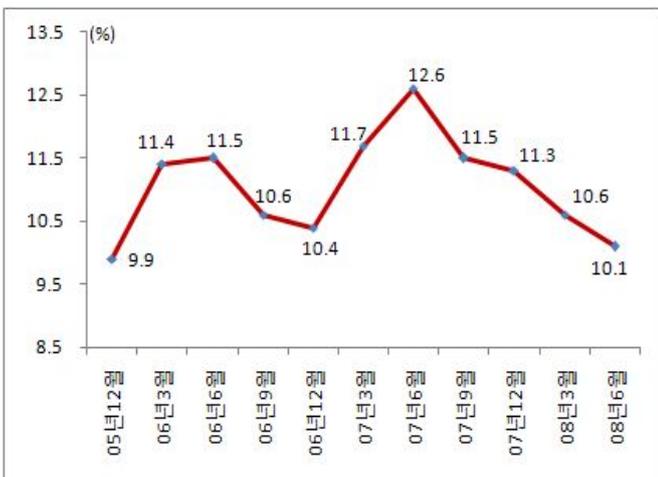
- 2007년 10월부터 월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며 무역흑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2008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21.9%를 기록한 반면, 수입증가율은 30.6%에 달해 전년 대비 12.4%p나 상승하였음.
- 6월 중 수출증가율은 전월 대비 10.9%p 하락한 17.2%를 기록하며, 월간 무역흑자가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함.
-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99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7년 상반기 대비 132억 달러 감소한 것임.

- 수출증가율 둔화는 수년간의 임금인상, 곡물·에너지 가격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2008년 들어 위안화 평가절상 속도가 매우 빨라진 데 기인하고 있음.

■ 성장률 소폭 둔화

- 2008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10.1%로 2005년 4/4분기 9.9%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분기별 성장률임.
- 이는 전년동기대비 2.5%p 하락한 것으로 2007년 3/4분기 부터 연속 4개 4분기 동안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음.

그림 3.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과 함께 긴축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2. 최근 경제 동향

### 가. 투자 및 소비는 견조한 성장세

- 2008년 상반기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한 26.3% 증가한 6조 8,402억 위안(약 9,828억 달러)를 기록함.
- 특히 석탄 및 비금속 채굴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32.0%p나 늘어난 69.5% 증가했는데, 이는 2월 초 폭설피해를 입은 동 1차 산업 생산시설의 복구를 위한 투자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동부, 중부,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각각 22.4%, 35.3%, 28.6% 증가해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있는 중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가 특히 크게 늘어나고 있음.

- 2008년 상반기 중국의 소비시장은 전년동기대비 6%p나 높아진 21.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그 규모는 5조 1,043억 위안(약 7,334억 달러)임.

-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으로 석유제품(44.4%), 곡물류(33.1%), 육류(28.9%)에 대한 소비지출이 늘어났으며, 금은보석류(43.9%), 가구(32.3%), 자동차(33.4%), 의류(25.6%)에 대한 소비도 크게 늘어남.

### 나. 유동성 공급 비교적 안정

- 2008년 중국의 총통화(M2)공급은 44조 3,100억 위안(약 6조 3,6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6%p 높아진 17.4%의 증가율을 기록함.
- 그러나 6월에는 전월 대비 0.7%p, 연초대비 약 1.5%p 하락하여 중국정부의 긴축 및 유동성 조절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 상반기 주요 경제지표

	2005	2006	2007		2008
			연간	상반기	상반기
GDP	183,218	211,924	249,530	108,913	130,619
경제성장률	10.4	11.6	11.9	12.2	10.4
소매판매	67,177	76,410	89,210	42,044	51,043
(%)	12.9	13.7	16.8	15.4	21.4
고정자산투자	88,774	109,998	137,239	54,168	68,402
(%)	26.0	23.9	24.8	25.9	26.3
소비자물가(%)	1.8	1.5	4.8	3.2	7.9
총통화(%)	17.6	16.9	16.7	17.1	17.4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008 중국통계적요

### 다.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급증

- 2008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22.2% 감소하였으나(14,544건), 투자 실행액은 45.6% 증가한 524억 달러를 기록함.
- 즉 외국인투자의 건당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음.

- 예를 들어 미국과 EU로부터의<sup>8)</sup> 투자 건수는 각각 28.2%, 23.9% 줄어든 반면 실행액은 각각 12.6%, 24.4% 증가함.

**라. 무역흑자 감소**

- 2008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5.7%p 둔화된 21.9%, 수입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2.4%p 상승한 30.6%를 기록하였고, 그 결과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기대비 11.8% 감소한 990억 달러를 기록함.
- 수출 둔화는 주로 주요국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데 기인함.
- 수입 증가는 주로 원유·곡류 등 원자재가격이 크게 인상되었고, 중국내 소비증가로 인해 석유, 철강, 두류 등의 수입량도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하고 있음.

**마. 외환보유고 지속 증가**

- 2008년 상반기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조 8,088억 달러로 연초 대비 2,805억 달러 늘어남.
- 외환보유고 증가분 중 무역흑자와 투자유입을 제외한 1,291억 달러가 유입된 경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 중국정부가 외화 유출입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임.
- 가령 중국 외환관리국은 8월 4일부터 중국 내 수출업체의 판매수익이 실질적인 무역거래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송장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함.

표 2. 상반기 주요 대외경제지표

	2005	2006	2007		2008
			연간	상반기	상반기
교역(%)	23.2	23.8	23.5	23.3	25.7
수출(%)	28.4	27.2	25.7	27.6	21.9
수입(%)	17.7	19.9	20.8	18.2	30.6
무역수지(억\$)	1,019	1,775	2,622	1,125	990
FDI	724.1	694.7	748	319	524
외환보유고(억\$)	8,189	10,663	15,283	13,326	18,088
환율(위안/\$, 평균)	8.19	7.97	7.61	7.68	6.96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

**3. 향후 전망**

■ 건축 기초 부분적 완화 예상

- 비록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으나, 성장률이 하락하고 수출이 둔화되었으며 통화량이 안정됨에 따라, 그동안 강력하게 실시해 왔던 긴축정책이 하반기에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 중국정부는 그동안 물가안정 및 자본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금리 및 지급준비율을 여러 차례 인상하는 등 긴축 통화정책을 펴왔으나, 하반기에는 그 강도가 완화될 것으로 평가됨.
- \* 금리: 2007년에만 6차례 인상, 1년 만기 대출 이자율 6.39% → 7.47%; 지급준비율: 2007년 10차례, 2008년 6차례 인상, 현재 17.5%
- 또한 하반기에는 물가상승 속도가 완만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긴축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더 커짐.

- 한편 국내시장의 주요 제품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 부진으로 인한 초과 공급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중국 내 물가상승을 주도해 온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음.
- 2008년 곡물 수확량이 예상보다 높고, 식료품 가격 인상을 촉발했던 돼지고기 공급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료품 가격이 다소 안정될 전망이다.

- 최근 중국정부의 연료 및 에너지가격 인상조치의 경우 대부분 산업용에 해당하여 소비자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위안화 절상 속도 둔화 예상

- 2008년 7월 25일 현재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6.82위안/달러로 2008년 들어서만 약 6.6% 절상되었음.
- 2006년 연간 절상률은 3.2%, 2007년 6.9%였으며, 2005년

8) EU 중 상위 1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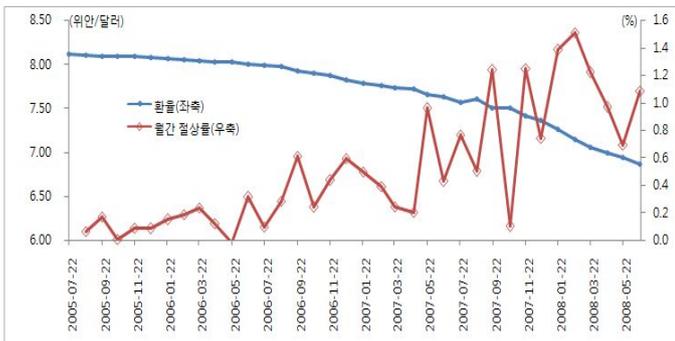
7월 21일 변동환율제(복수통화바스켓 제도) 채택 이후 누계 약 17.6% 절상

9.8~10.2%, 2009년 8.9~9.0%로 예측하고 있음.

- 이처럼 위안화 절상 속도가 매년 가속됨에 따라 중국 내 수출업체들이 도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위안화 절상과 인건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기지인 광둥(廣東)성의 제조업체 가운데 약 26% 이상이 손실이 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음.

**연구진:**  
 이승신 중국팀 부연구위원  
 (sslee@kiep.go.kr, Tel: 3460-1235)

그림 4. 중국의 환율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2008년 들어 수출증가율도 둔화됨에 따라 최근 중국 상무부는 위안화 절상속도를 늦추고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및 관세 환급을 늘려야 한다고 건의함.
- 향후 섬유, 의류, 완구 신발류 등 어려움에 처한 일부 저부가가치 수출 업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음.
- 위안화 절상기조 자체는 유지될 것이나 절상 속도는 상반기보다 둔화되어 연말까지 10% 내외의 절상폭을 유지할 전망이다.

■ 10% 내외의 경제성장률 전망

- 경제성장률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올림픽 개최 등 성장촉진 요인도 있어 연간 10%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음.
- 소비 및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수출증가율도 20% 이상 유지되고 있어 하반기에 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낮음.

※ 세계 주요 전망기관들은 중국경제성장률을 2008년